

월/요/광/장

서선희



지난 4월 2일부터 5월 9일의 38일 동안 광주에서는 '광주 세계 광 엑스포'가 열렸다. 빛에 관한 모든 것 - 일상생활로부터 과학, 기술, 산업에서부터 문화,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빛의 다양한 분야를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축제였다.

뿐만 아니라 광산업은 미국과 아시아, 일본이 세계 시장의 75.8%를 점유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연평균 7.5%의 속도로 성장하여온 우리나라의 광산업도 최근 세계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고, 특

빛(光)에는 이야기가 많다

히 광주에서는 자동차·가전 산업과 더불어 광산업이 광주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 중의 하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빛이라 함은 무진장 빠른 속도 내지는 휘거나 꺾이는 성질을 연상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는 해도 예너지나 양자 등과 관련된 물리학 현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쳤었는데, 빛이 우리를 먹여 살릴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이구나! 신선했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광 엑스포를 보면서 빛이 문화이기도 함을 확연히 알게 되었다.

광산업을 광주의 주력산업으로 선택한 것에는 광주가 이 땅의 민주화 과정에서 담당해 온 선구자 역할도 한 몫을 하었다고 한다. 광주 학생 운동과 5·18 민중 항쟁에서와 같이 어둠속에 빛을 밝힌 광주의 저항정신과 광산업의 광(光)은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빛이 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빛에는 이야기(story-telling)가 많다. 성경의 창세기에 따르면 우주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된다. 빛에

는 혼돈을 종식시키고 창조와 희망의 상징성이 있다. 빛에는 생명의 이야기도 있다. 빛은 수증기를 만들어 대기를 형성하고, 대기가 다시 비가 되어 바다를 만들어 내고, 바다는 그 안에서 많은 생명을 길러낸다. 빛은 또 광합성을 통해 식물들을 길러내며, 식물들은 양식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길러낸다. 빛은 길이며, 진리이다. 빛은 순례이며 구원이다. 이처럼 빛은 무궁무진한, 그러면서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먹여 살릴 주요 산업이라는 무취(無臭)한 사실에 이야기가 덧입혀지면서 빛은 한결 따뜻하고 친근한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빛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녹아 들어간 아름다운 빛의 문화화가 광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빛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식물은 빛이 없으면 결코 살지 못하지만 밤낮없이 빛을 들이대면 생명력이 감소한다. 빛은 어둠속의 도시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신시켜 주지만 넘치는 빛은 신경을 곤두서게 하거나 흥분의 짜구려 냄새를 풍기게 한다. 광주천이 빛으로 빛나면 아름답지만 너무 많은 빛은 물의 속삭임과 물결의 아름다움을 없애버린다.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에 덧입혀진 빛은 우리를 감탄케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광주의 많은 벽을 낫지 않아 빛으로 반짝이게 하면 우리는 눈 돌 곳을 잃게 된다. 태생적으로 강열하고도 직선적인 빛의 성격 때문에 광복유급(遍拂有給)의 원리가 보다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빛의 성질까지도 고려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인 빛의 문화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대학교 사회복합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막내린 광엑스포, 광산업 도약 계기돼야

'2010 광주 세계 광(光)엑스포'가 38 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폐막됐다. '빛'과 '광산업'을 주제로 한 이번 광엑스포는 예초 목표 130만명을 훨씬 넘는 148만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더욱이 재정과 경험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광주시가 신종플루, 천안항 사건, 최악의 기상이변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광엑스포라는 국제행사를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번 엑스포는 빛과학체험관, 주제영사관 등 9개의 전시관에서 전세계의 다양한 광산업 제품들을 선보이고 빛을 주제로 한 분수쇼, 영상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이어졌다. 이를 통해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도시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긴 것도 사실이다. 짧은 준비

기간과 지방정부로서 갖는 한계 등이 풀 수 없는 측면도 있었지만 '세계 광엑스포'로 부르기에 너무 미흡했다. 우선 행사장 내 안내시스템 및 일부 전시관의 콘텐트 부실, 편의시설 부족 등 운영상의 미숙이 지적됐다.

또한 관람객 가운데 타시도에서 왔든 내국인은 50여만명, 외국인인 8만4천여명에 달해 당초 우려했던 '안방 행사'는 면했다고는 하나 대부분 학생 단체관광객들에 의존한 것은 그 한계성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신종플루 때문에 세계 빛도시연합 총회 동시개회와 함께 30개국 50개 도시를 참석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당초 계획이 무산된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광주시에 조직위는 이번 엑스포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그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광산업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고, 광주가 진정한 '빛의 고을'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부채급증 대책 서둘러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가 심상치 않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이 25조 5531억 원으로 정부부채의 7.96%를 차지했다.

부실한 지방재정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국가부채 증가의 주요인이 될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지자체 부채 증가율은 2008년 까지 5% 미만인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한 해도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34.15%나 늘었다.

세수가 줄어든 것이 지방재정 악화의 일차적 원인이다. 지자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기 침체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 시 가뭄이나 낮은 재정자립도가 더 하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지방세수 감소액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적 약자인 빈곤층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당분간 지방재정이 호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으나 지방정부 세원은 한 정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변해야 한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됐으나 경제력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전체 세수의 20% 수준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의 근본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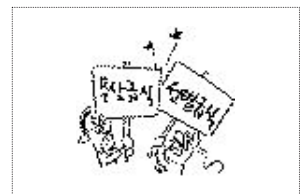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뿌리 뽑아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을 호화형사 신축이나 이벤트성 행사 등 엉뚱한 곳에 써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다각적인 감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성향에 따라 찬반으로 갈려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일이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를 요소 중 하나라는 관측도 나온다.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관련 '조어(造語)' 경쟁도 치열하다. 이른바 '프레임(논의 틀) 전쟁'이다. 집권 초부터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해온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을 되레 '부자 급식'이라고 공격했다. 야당은 한나라당의 선별 급식 정책을 '눈칫밥 급식' '왕따 급식'이라고 맞받아쳤다. '4대강 대신 무상급식'이라는 대비 효과를 노린 구호도 등장했다.

무상급식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책 대결과 경쟁은 바람직하다. 반면 표몰이만을 위해, 표가 되는 일이면 뿌리까지 달라는 행태는 곤란하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소 득격차에 따른 단계적 도입을 주장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무상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에 돌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화를 꾀한다. '선별 무상급식'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소득격차에 따른 단계적 도입을 주장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무상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에 돌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화를 꾀한다. '선별 무상급식'이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전도영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관의 임명제도에 연유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법관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착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다. 그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연수절차를 거쳐 갖 약관을 넘긴 나이에 바로 법관이 된다. 요컨대 지금 우리의 법관 선발은 '시험에 능통한 착실한 젊은이'가 기존의 전부다.

그러나 법관으로 임명된 다음날부터 그들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가는 일감들은 이러한 젊은이들이 처리하기에는

법관 선발기준 개선해야 할 때

며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너무도 벅찬 것일 뿐 아니라, 이들이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어두운 사회에서 겪어온 불합리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나 변호사의 변설이 탐탁스러울 수가 없다.

하지만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고, 그에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 본인이다. 따라서 그들이 마음 놓고 사실을 말하고 이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건의 실제적 진실 파악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

우리 사법제도 개선의 큰 물줄기가 법관 임명 등 인사제도의 개선 쪽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시험을 통과하고 연수절차를 마치면 모두 변호사가 되고, 그 중에서 일정수준의 경력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골라서 법관에 임명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노련한 이들이 넓은 마음과 안목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려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의 회복은 결코 먼일이 아닐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두려운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법부 종사자들만이 아닌 우리 법조인 모두, 아니 국민 모두의 여망이기에 서두를 일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피부관리실 이어캔들 화상피해 '주의'

며칠 전 피부관리실에서 이어캔들을 사용하던 여성이 갑자기 "앗! 뜨거워!"라며 화들짝 놀라며 이어캔들을 뽑아버리는 것을 봤다. 이어캔들은 불이 붙은 초를 심부 이상 귀에 꽂는 방식이다 보니 뜨거운 촛농이 귀속에 흘러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것 같다.

효과가 있고, 코막힘 현상이나 귀 막힘 현상에도 그 증세를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고에 명시된 우울증 개선이나 두통제거, 불면증 치료 등의 효능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촛농 화상의 위험도 따르고 귀속 화상은 잘 치료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윤용숙·광주시 서구 벽진동

기고

정기석



디자인은 특정한 분야를 떠나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고 이미 생활화 되었다.

디자인은 맑은 생수와 같고, 신선한 공기와 같고 생활속의 유행유와 같다. 디자인을 먹고, 디자인을 마시고, 디자인을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디자인의 맛을 알고 좋은 디자인을 붙들 줄 아는 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미 모두 디자이너가 되어있다. 의식 속에서 살아 숨쉬는 디자인은 우리가 어디를 가

던 전방은 낙후지역으로 인하여 무관심 속에서 개발되지 않았던 숨겨진 자원들이 긴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로 탄생되고 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은 권의 행정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디자인, 문화, 예술이 자랄 수 있는 필드를 만들고 마음껏 재주를 부릴 수 있는 명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목포시는 요코하마와 환경이 비슷한 역사적 가치가 살아있는 낙후된 항구도

디자인의 힘

든 언제나 함께 있고 소통과 융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최근에는 사회 곳곳에서 감성을 더한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가 우리 눈앞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감성의 시대에는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질 만으로는 찾아오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감성비이러스가 담긴 디자인에 의한 혁신만이 기업과 지역의 변화를 주도한다.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중 3대 미항으로 급부상한 요코하마는 올해로 개항 151주년을 맞이하였다. 요코하마시의 재산은 바다와 항구와 역사적 산물이다.

2002년 취임한 나카타 히로시 시장은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인구감소, 고령화 등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낡고 노후화된 도시를 재생하여 요코하마를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문화예술도시창조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요코하마다움을 살리는 "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사업을 추진하였다.

행정부가 전체 계획의 골격을 만들고 모든 사업은 예술가, 시민단체 등에 일임하여 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시스템이다.

일본 최대의 차이나타운, 항만의 건물과 창고 등 역사적 건물들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은 시 정책의 산물이 되어 요코하마시는 지금 일본 최고 관광·문화도시로 발돋움 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꽃피었다.

40년동안 국가 불균형 발전으로 소외

시다. 디자인을 접목한 새로운 큰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 요코하마시의 성공사례처럼 세계적인 미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 2012연수세계엑스포 개최는 우리나라 항구도시들이 새로운 미항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정책의 이념, 계획을 소신 있게 펼쳐 녹색의 땅 전남에서 녹색디자인 씨앗이 자라나 작가는 행정문서 디자인에서부터 경관디자인까지 모든 핵심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도록 행정조직이 함께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 전남도가 갖고 있는 녹색자원에 새로운 변화로 부가가치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디자인의 힘이다.

세계적인 명품관광 도시들은 한결같이 창조적 디자인 문화공간을 구축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변화를 주도하였고 창조적 인재와 자원을 유인하여 도시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힘을 창출하고 있다.

변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도 '공공디자인'라는 화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자원이 새로운 가치로 변화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녹색디자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조성은 결국 리더십에서 나오며 장기적인 플랜을 판단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지도자의 몫이다.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